

세계 최대 울돌목 조류발전소 철거 '갈등'

"경제성 낮고 주변 경관 저해"…전남도·진도군 공유수면 연장 반대

한국해기원 "2017년까지 200억 들여 2차 사업…추가 연장 불가피"

세계 최대 규모의 조류발전소(潮流發電所)로 관심을 모았던 울돌목 조류발전소를 놓고 추진 기관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일기 서려 있는 울돌목에 설치된 조류발전소에 대해 최근 진도군이 공유수면 연장 사용을 불허하고 철거하도록 했다.

이 발전소는 지난 2005년 착공, 4년

여 공사장에 2009년 5월 완공됐으며 사업비 143억원이 투입됐다.

500㎾급 2기의 울돌목을 가로질러 설치됐으며 수면 위 발전시설을 포함해 가로 16m, 세로 36m, 높이 48m에 무게만 1000t 규모로 세계 최대급이다.

조류발전소는 빠른 물살(潮流)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로 세계적으로 노르웨이

등 유럽 일부에서만 개발이 추진 중이다.

울돌목 발전소는 400여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1000㎾급)로 시험운영 뒤 증설을 거쳐 울해부 터는 9㎿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조류발전소에 대한 실용화 여부를 판단하는 용역결과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지만 사업 경

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공유수면 허가권자인 진도군이 해상안전사고 위험, 녹진관광지 경관 저해 등을 이유로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전남도도 지난 2011년 발전소 철거 시지를 통보했다.

사업 시행처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제2차 국책사업인 '능동제어형 기술개발과 발전소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겠다며 허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기원)은 200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2차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와 진도군 관계자는 "이미 경제성이 없는 프로젝트로 결과가 나온 만큼 공유수면 연장을 검토할 수 없다"며 "주변 관광지를 저해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해남과 진도를 잇는 울돌목은 해협 폭이 300여m에 유속이 초당 4.8~6.2m로 국내 해협 가운데 가장 물살이 빠른 곳이다.

전남지역은 울돌목 말고도 진도 도면 인근 장죽수도(110㎾급)에 2012년 4월 시험 발전소가 설치돼 운영중이며 임회면 해상에도 1000㎾급 실증시험 조류발전소 설치가 진행중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무안군 관내 16개 기관·주민 등 300여명

'행복클린 범군민운동' 발대

'행복클린 범군민운동' 발대식이 지난 17일 무안군 관내 16개 유관기관 단체장과 주민,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발대식에는 김철주 무안군수, 임덕수 군의회 의장, 최삼동 경찰서장, 김천성 푸른무안21협의회 상임의장 등이 참석했다.

행복클린 범군민운동은 '깨끗한 무안=행복무안' 이란 슬로건 아래 ▲내 집 앞 내가 쓸기, ▲아름다운 거리 조성, ▲기초질서 확립 등 3대 과제를 주민 스스로 참

여하고 실천하는 군민 행복운동이다.

참가자들은 행복클린 범군민 운동 실천을 위해 결의 대회를 갖고 무안을 지역 상가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 배부 등 가우 캠페인과 함께 정화활동을 벌였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내년에 열리는 전남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종묘 생산서 양식·가공까지

참조기 '양식지도' 만들었다

전남수과원, 굴비 가공 지재권 2건 특허 등록

종묘 생산에서 양식·가공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참조기의 '양식지도'가 완성됐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영광센터는 양식 참조기의 굴비 가공에 관한 지적재산권 2건을 최근 특허청에 등록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수과원은 이번 특허 취득은 종묘 생산 자체부터 어려웠던 참조기 양식에서 가공까지 수작계열화를 이뤄냈다는 의미가 크다.

전남수과원은 지난 2004년부터 참조기 양식에 뛰어들어 이듬해 산란과 부화 등 인공 종묘생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후 8년만인 2012년 25cm 이상의 대형 참조로 키우는데 성공하는 등 '참조기 양식'에 한 획을 그었다.

참조기 양식이 어려운 것은 상품성이 있는 성어(成魚)까지 키우는데 최소 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으로 이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남수과원은 우랑 친어(어미)를 선발한 후 헷볕주기(光週期), 수온조절, 영양관리 등을 통해 2년을 1년반으로 줄였다.

앞으로 최종 목표는 1년만에 출하 가능할 성어로 키우는 것이다.

이번 특허는 잘 자란 양식 참조기 암수를 굴비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맛을 낼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낸

것이 핵심이다.

최고의 상품으로 치는 일이 꽤 찬 이른바 '알래기 굴비'와 상대적으로 천대받았던 수컷도 최적의 맛을 낼 수 있는 가공법을 개발했다.

성성숙(性成熟) 지수(GSI) 등을 고려해 3월에 선별한 후 가공하는 것으로 해풍에 말리는 수준에 그쳤던 기준 가공법과 차별화했다.

특히 지난해는 영광군의 명성 회복과 대량 양식을 위한 전진기지로 참조기산업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등 하드웨어도 구축했다.

이 센터는 사업비 23억원이 투입됐으며 부지 4만2000여m²에 종묘생산 등, 실험동, 저수지 등을 갖췄다.

영광군에서는 매년 1만9000t의 굴비를 생산, 국내 단일 수산물로 최대인 40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영광센터 관

계자는 "종묘생산에서 양식, 가공법 등을 체계화하는 등 양식지도가 완성된 셈이다"며 "기술보급을 통해 어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목포 대형 유통업체 우회입점 제동

홈플러스, 전남도에 행정심판 청구 기각 결정

모의 대형 유통업체를 짓는 것이다.

목포시가 건축주 명의변경 불허 이유로 재래시장 위축과 지역 영세상인 어려움, 자금 외부유출 등을 들었다.

최근 열린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복리에 위배된다"는 사유를 들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의 우회 입점 가능성은 없지 않은데다 허가 시설 규모만도 대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애초 건축허가로부터 '봐주기 허가'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농촌어린이들의 서울 문화체험

여수 소라초교 4개 분교생 국회의사당 등 방문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는 지난 17일과 18일 '농촌어린이 서울 초청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여수시 지부(지부장 정병길)가 열약한 교육환경에도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 자녀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네 번째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여수 소라초등학교의 4개 분교(사곡분교, 소라남분교, 신흥분교, 여자분교) 학생 41명과 임창주 교장 등 교사, 학부모 21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국회의사당, 역사박물관, 경복궁, 광화문광장, 경찰박물관, 전쟁기념관 등을 견학하고 방송국, 63빌딩, 테마동물원 등에서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는 전국 18개 지역본부를 통해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가정, 조손가정, 독거노인 등을 위해 다양한 공연 활동과 복지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땅끝 오토캠핑카서

아빠와 추억 만들기

해남군 10가족 초청

이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으로 25일까지 10가족 선착순 모집

한다. 캠프비용은 가족당 5만원이다.

해남군 김경자 출산정책 담당은 "이번 캠프는 자녀와 함께 요리도 해보고 아빠에 대한 자녀 생각을 읽고 마음으로 느끼며 건강한 가족으로 거듭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①총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만

오피스텔, 상가기별적합 9억6천

②평균 영업 절되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과 함께 있는 2층 주거지 504평 땅에는 소형APT나 다세대 적합 10억5천

③월풀·다세대적합지 흙·복동상지 64평 매도1억6천

④개별동 구호빌건물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방의원·한의원·시عا동에 적합 18억

⑤대인동 소방도로 상지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9억5천

⑥조선대학교 앞 동영동 고시원과 주택 및 사무실등 건물4동 대지321평 건물592평 고시원176실 전세5천만원에 월3500만원선 수입예상. 대출9억 임대수익상황에 적합. 법인인정39억

⑦대인동 소방서 부근 대로변 상지지역 694㎡(210) 건평158평 광장은행 본점부근 공시지가에 매도11억6천

매도·임대

⑧매도. 수기동 상지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4천

⑨매도. 신안군 지도읍 오피스텔, 증도에 슬로시티와 월드라도 가는 길, 바다가 보이는 별장용 APT. 모임이나 회사의 복지시설로 적합. 30평과 41평이 있고 대출은 8천에서 1억가능. 거치는 1억2900만원과 1억8500. 임대도 가능하며 조건은 조정함.

⑩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주택전시관 1층167㎡(50) 전세5천에 월200선 임대. 분위기 있는 상당도 적합

⑪임대·매매. 생활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의 기도생활주택 2층 건물 흘림길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임주는 11월 말경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기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 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해서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당부동산은 가도건설 전속중개사무소입니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군원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김정기4억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김정기4억 최저가26억

▷니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김정기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북구 장등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김정기1억8천만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김정기1억 최저가7천만